# 남동구, '2025 주민자치 한마당' 주민 화합 속 성황리 개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부설주차장에서 열린 '2025 주민자치 한마당'이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남동의 가을, 주민자치로 물들이다'라는 표어 아래 남동구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꾸며졌다.

한마당의 시작을 알린 인천시립장애인예술 단의 식전 공연은 완성도 높은 연주와 감동적 인 메시지로 큰 박수를 받으며 축제의 분위기 를 한층 끌어올렸다. 행사장에서는 각 동 주민 자치회가 준비한 홍보부스와 60여 종의 다양 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주민자치회의 활 동 성과를 공유하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 각 동의 특색 있는 문화와 끼를 선보이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도림초, 논현중, 고잔고 등 지역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동아리 공연, 장애인합창단 '예그리나'의 따뜻한 무대, 지역 예술인의 버스킹 등 다양한 주민 공연이 함께 펼쳐져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남동구청지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2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 덕적도 자연휴양림, 개장 7 개월 만에 1만 3천 명 방문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3월 4일 정식 개장한 '덕적도 자연휴양림'이 개장 7개월 만 에 누적 방문객 1만 3천여 명을 돌파하며, 안 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220 일원에 위치한 공립 산림휴양시설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0월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3월 본격 개장했다. 총 면적 12만㎡ 부지에 ▲숙박시설 9실 ▲야영데크 6면 ▲카페테리아 ▲방문자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서형 산림휴양지로 수도권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성수기(7.15.~8.24.)와 추석 연휴 기간에 는 숙박시설과 야영데크가 전 객실 예약 완료 되는 등 개장 첫해임에도 높은 이용률을 기록

특히,'숲나들e'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한 빠른 예약 마감은 휴양림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이용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수도권 주민의 도서 자연휴양수요를 충족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서 접근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탁 트인 바다 조망과 쾌적한 숙박환 경 등 이용 만족도가 높아 수도권을 비롯해 전 국 각지에서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 했다.

# 인천시, '천 원'이 만든 새로운 도시 가치 포용 행정 모범

주거·문화·식생활 등 생활 속 체감 복지 누구나 공평하게 인천시의 '시민행복'시정 시민과 함께 성장 ··· 주민생활 만족도 5위



인천시가 '천 원'이라는 상징적 단 위를 통해 생활 속 체감복지를 구현 하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9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인천은한 달전 보다 1.6%p 오른 64.6%를기록하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5위를기록하면 시민과함께 성장하는도시임을입증했다. 또한 대한민국도시 브랜드 평판 2025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2위로 분석됐다.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의 아 침밥', '천원 문화티켓' 등으로 대표되 는 '인천형 천 원 정책'이 단순한 가 격 인하가 아닌,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천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인천이 시민에게 건네는 신뢰의 단위다. 커피 한 잔 값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인천시는 천 원으로'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 부를 대상으로 한 '천원주택' 사업을 통해 1일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 료로 최대 6년간 안정적인 거주환경 을 제공한다.

연간 총 1,000호 규모로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은 주 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인천 정 착을 유도하고 출산·양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원택배'는 2024년 10월 도입된 '반값택배'에서 발전한 전국 최초의 공공생활물류 모델이다.

지하철역 30개소에서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 2,500원으로 운영되던 반값택배는 운영 8개월 만에 계약업체 6천여 곳, 누적 배송 50만 건을 달성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평균 13.9% 높였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의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은 1,000원만 부담하고 정부·지자체·대학이 나머지를 분담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1천원의 보조금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120g의 지역 생산 쌀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천원 문화티켓'은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신규생활문화복지 정책이다.

인천 시민이 비연육 25개 섬을 1,500원(편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i-바다패스'도 인천시 천원 정책에 버금가는 사업이다. 인천의 천 원 정책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심하린 기자

## 성인문해교육 특강서 "AI 주도 시대, 읽걷쓰가 답이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7일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초등·중학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AI주 도시대, 읽건쓰가 답이다'를 주제로 특 강을 진행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초등 1~3단계와

중학 1~3단계 전 과정을 운영하는 인 천시교육청 지정 최대 규모의 학력인 정 문해교육 기관으로, 인천의 성인문 해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읽건쓰가 답

이다'를 주제로, AI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습력과 건강을 함께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생학습의 중요성 을 역설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학습자는 "그동안 생계를 위해 소홀히 했던 읽고 걷고 쓰고 활동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건 강한 마음의 학습 실천의지를 견고하 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했다.

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문해교육 학습지를 위한 보충학습과 시화 작품 전시 등 배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 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초등(☎032-899-1515), 중학(☎032-899-1513) 또는 평생학습관 누리집(www.il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하린 기자

#### 서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철 을 맞아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 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1일부 터 24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다량 발 생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 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특별관리 공사장(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포함하여 아스콘 제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 비산먼 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유 지를 위해 민간인(인천자율환경연합 회)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적정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가을철 민·관 합동 단속 결과 36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비산먼 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한 상태 로 운영 중 적발되었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실태 확인 등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강화군, 남산마을 '공유주방' 문 열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7일 남 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유주방'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공유주방은 남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연 면적 173㎡ 규모로 마련됐다. 시설에는 마을안내 소, 공동 주방, 판매장 등이 갖춰져 있 다.

개소식에는 남산마을 주민과 도시재 생 관계자, 지역사회단체 등 100여 명 이 참석했으며, 마을에서 직접 담근 김 치 시식과 다과회를 통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유주방 개소와 함께 선보인

'남산 맛 김치' 판매행사가 큰 호응을 얻어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남산 맛 김치'는 남산마을 사회적협 동조합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제품으로, 김치 판매를 통해 마을공동 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 익 일부를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 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배 남산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장은 "이번에 개소한 공유주방은 지 역 주민이 함께 조리·판매·공간대여· 교육활동을 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 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마을 브랜드 상품 '남산 맛 김치'의 지속적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남산리 주민공 동이용시설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도 시재생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 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 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4일 과 25일 전북 전주시에서 '2025년 부평 구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조직 14곳의 임직원 등총 27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대 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 록 마련됐다.

첫날에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소속 조직을 소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 간을 가졌다.

이어 참여자들은 전주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방문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과 산업 동향을 파악했다. 박람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광역돌 봄 네트워크의 역할과 과제' 및 '통합돌 봄사업 시행에 따른 자활기업의 역할 과 준비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된 다양 한 토론회(포럼)에도 참석해 다른 지역 의 조직들과도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전주의 한옥마을 탐방 후 충남 당진으로 이동, 지역 우수사례 로 꼽히는 마을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인 '백석올미마을(한과)'을 방문했다.

백석올미마을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마을 공동체가 우수 마을기업 및 사회 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간 과정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심하린 기자

#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내본건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김선준, 진혜진

